

# 在日濟州人の 世界

## -梁石日の「피와 뼈」-

金 永 和\*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在日生活    |
| 2. 渡日の事情 | 1) 밀바닥 삶   |
| 1) 余俊坪   | 2) 無力感과 挫折 |
| 2) 李英姬   | 3) 家庭의 不在  |
| 3) 高信義   | 4. 맺음말     |

## 1. 머리말

東京에 있는 耽羅研究會의 사무국장인 梁聖宗에 의하면 濟州 出身으로 日本에서 作品活動을 하다 作故했거나 현재 활동중인 사람은 『火山島』의 金石範(1925~), 『由熙』의 李良枝(1955~1992), 『피와 뼈』의 梁石日(1936~)을 비롯해서 金泰生(1924~1986), 金時鐘(1929~), 金吉浩(1949~), 元秀一(1950~), 金倉生(1951~), 金重明(1956~)등이 있다. 김석범, 이양지의 소설은 이미 한국에 翻譯되어 讀者들이 많이 읽었고, 反應도 좋았다. 이번에 양석일의 『피와 뼈』가 번역되어 나와 독자들이 어떤 反應을 보일지 관심이 있다.

우리 나라가 일본의 植民地가 된 1910년 이후 오늘날까지 濟州島 사람들의 日本 來往은 頻繁했고, 현재 日本에 居住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들은 여러 가지 事情과 經路를 통해 日本에 건너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日本에 건너가게 된 動機나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사정도 각각 다르고 일본에서의 생활도 千差萬別이다. 앞으로 史家들에 의해 제주민의 日本移民史, 혹은 流浪史가 記錄되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살면서 日本文化的 洗禮를 받으면서도 濟州文化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側面은 民俗學, 또는 文化人類學을 研究하는 學者들에 의해 연구되어 나올 것이다.

文學은, 특히 小説은 事實보다 虛構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장르다. 그러나 事實을 重視하는 歷史보다 더 事件이나 事態의 本質과 眞實에 接近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小説에 反映된 濟州人の 日本 移民과 在日生活은 虛構임에도 불구하고 眞實에 더 가까울 수 있다.

筆者는 濟州人の 일본 移住, 그리고 재일생활이 文學作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調査中인데, 小説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作家는 우선 金泰生인 것 같다. 필자는 아직 그의 作品을 入手하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야시 고지(林 浩治)가 쓴 「解題 金泰生--生と死の文學」<sup>1)</sup>을 읽으면 대강의 輪廓은 把握된다. 이 論文에서 하야시는 「骨片」, 「私の日本地圖」, 「痰コップ」, 「ある女の生涯」, 「少年」, 「童話」, 「私の人間地圖」, 「爬蟲類のいる風景」, 「夏の日に」, 「旅人(ナグネ)傳説」, 「紅い花」, 「李蓮實さんのこと」, 「猪飼野再訪」, 「巢立ち」등을 言及하고 있다. 이들 作品 가운데 「骨片」을 비롯한 몇몇 작품은 제주인들의 일본 이주 과정과 재일생활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金泰生の 小説은 아직 入手하지 못해 論議할 수가 없어 뒤로 미룬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作家가 梁石日이고, 그의 소설 『피와 뼈』다. 이 소설은 소설 내용의 特異성과 作中人物인 김준평의 不可思議한 存在方式이 讀者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설의 내용은 이 소설을 번역한 金石禧의 “웁긴이의 말”을 읽으면 대강 파악할 수 있다.

‘피는 어머니한테 받고, 뼈는 아버지한테 받는다.’는 제주도 무가(巫歌)의 한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이 소설은, 일본 오사카를 무대로, 192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굴절된 현대사의 물결에 우롱당하는 재일 한국인들의 모습을 짜 맞추면서, 김준평이라는 한 인물의 격렬한 삶과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있다.

폭력배들조차 두려워하는 거구와 완력, 절륜한 정력, 흥포하고 인색하고 악착같은 성질, 술과 노름과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 인간의 모든 업(業)을 한몸에 짊어진 듯한 그의 악행은 가족과 주위사람들을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자신도 파멸시킨다.

사랑이니, 구원이니 하는 추상적 가치는 그에게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

1) 「記錄」, 1990年11月-1991年2月.(후에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에 수록.)

는 철저하게 혼자이기를 고집한다. 야생의 짐승처럼 그가 믿는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며, 그는 욕망이 충동질하는 대로 살 뿐이다.”

이 소설을 읽는 독자는 主人公 김준평이라는 奇怪한 人物에 壓倒되어 在日濟州人の 일본 이주과정이나 삶을 看過하기 쉽다. 필자는 이렇게 看過하기 쉬운 부분을 크로즈업시켜 제일제주인의 移民(流浪)過程과 在日의 삶을 照明해 보려고 한다. 그것이 제일제주인의 삶을 透視하는 길이고, 人間の 삶의 바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2. 渡日의 事情

이 소설은 在日 一世인 金俊坪, 李英姬, 高信義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展開된다. 소설의 文脈을 통해서 보면 김준평과 이영희는 동갑이고, 고신익은 한살 위로 되어 있다. 그들은 1930년 무렵 오사카에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때 김준평과 이영희의 나이가 30세로 되어 있고, 고신익은 한 살 위로 되어 있다.(『피와 뼈』(자유포럼), 1권 87쪽)

그들의 出生年度를 逆으로 추적하면 1900년 출생한 것으로 된다. 20세기가 시작되고 開化의 물결이 일어날 무렵에 태어나 日本의 植民地가 될 때 그들은 열 살 전후였다. 그 당시 제주도 사람들의 經濟的 사정은 어려웠고, 農土에 의지하거나 바다에 의지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사정은 서로 다르지만 삶의 터전을 찾아 1920년대부터 일본에 건너가 살게 된 것이다. 故鄉인 제주도를 떠난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고향에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 1) 金俊坪

김준평이 고향을 등지게 된 사정은 다음 인용문에 나타난다.

김준평은 이 떠들썩한 조선시장을 지나는 게 싫었다. 거의 어김없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장에서 큰길로 나가려면 이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좌우로 건들거리며 걷고 있는 김준평의 어깨가 군중의 머리 위로 솟아올라 더욱 눈에 띈다.

---

2) 『피와 뼈(3)』(자유포럼, 1998), 291-2쪽.

“아이고, 너 준평이 아니냐. 나 기억남시냐?”

그러면서 한 노파가 다가왔다. 고향에 있을 때 이웃에 살던 신선할망이었다.

“예 기억남습니다.”

김준평이 고개를 끄덕였다.

“넌 어릴 적부터 덩치가 컸지만, 그 후로도 더 컸구나.”

신선할망은 김준평을 쳐다보았다. 고향에 있을 때라면 김준평이 열다섯 무렵이다. 고향마을을 떠나 부산에서 경성으로 떠돌다가 일본에 건너온 게 10년전이니까 했수로 15.6년 전이다. 하지만 신선할망의 기억 속에 김준평은 마을의 소문난 악동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서리질에 싸움질만 줄창 해대서 어멍 속을 무던히도 썩이더니…… 그런 널 이리 데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져. 어멍하곤 연락이라도 험시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김준평은 말문이 막혔다. 고향을 떠난 뒤 한번도 편지를 보낸 적이 없었다. 까막눈이라 해도, 편지를 보내려고 마음만 먹었다라면 대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오늘까지 소식불통인 채 지내왔다.(1권 33~4쪽)

김준평이 일본으로 流浪하게 된 것은 天性이 不良해서 우선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다는 점, 고향에서는 살아갈 길이 막연했다는 점이 小說을 통해 드러난다. 그는 부산, 서울 등지를 放浪하다가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될 때의 일본의 사정도 그를 일본으로 건너가게 만든 誘리이다.

동방산업에는 김준평을 포함하여 네 명의 조선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넷 다 제주도 출신인데, 어묵 공장 직공들 중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았다.

1923년 4월에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연락선 ‘기미가요마루’가 취항한 뒤, 제주도 각지에서 혈연과 지연, 친구나 친지를 믿고 오사카로 돈 벌러 오는 사람이 급증했다. 오사카 행정당국에서도 오사카와 고베(神戸)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신(阪神)공업 지대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에 쫓기고 있던 터라, 제주도에서 돈벌러 건너오는 노동자를 얼씨구나 하고 받아 들였다.

그러나 혈연과 지연, 친구와 친지를 믿고 돈 벌러 오긴 하지만, 현실은 냉엄했다. 손에 익힌 기술이 따로 없는 조선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고 장시간 중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늘상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어묵공장들로서는 이런 처지의 조선 사람들이야말로 안성맞춤의 해결책이었다.(1권 21~2쪽)

김준평의 渡日經緯는 특수한 것이지만, 당시 일본에서 값싼 勞動者를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주도 사람들의 도일 경위를 밝혀주는 한 端緒가 된다.

## 2) 李英姬

김준평의 妻로 나오는 이영희의 渡日經緯는 다음과 같다.

12년 전(1918년 경=인용자) 제주도 大浦里 마을의 윤씨 집안으로 출가했지만, 열 살이나 어린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이태 뒤에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리고는 기시와다(岸和田)의 방적공장에서 일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일본의 방적공장이나 탄광이나 항만 공사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찾는 일본인 부로커들이 많았는데, 사정은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다. '인신매매꾼'이라고 불린 이들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건너갔다. 사정은 좀 다르지만 영희도 그 중 한사람이다.(1권 36~7쪽)

小説의 文脈을 읽으면 이영희는 1920년, 그녀가 스무살 되는 해에 일본에 건너갔다. 當時의 風習인 未婚과 그에 따른 弊害의 犠牲者이기도 하다. 시집의 구박에 견디다 못해 뛰쳐나온 여자가 갈 곳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狀況이다. '죽어도 시집 귀신이 되라'는 것이 당시의 眞情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이었다. 홀로 獨立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남들의 눈총이 두려운 것이 그때의 事實이기도 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紡績工場은 당시로서는 安성맞춤이었던 셈이다.

## 3) 高信義

고신희의 渡日事情은 분명하다. 日本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신희가 일본에 건너온 것은 1926년 가을이다.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많은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에 건너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오사카에 건너가 일하면서 1, 2년에 한번 설날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옷차림부터 달랐다. 남자들은 대개 양복에 중절모를 썼고, 여자는 하얀 모시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개중에는 손목시계를 찾거나 금반지를 낀 사람도 있었다. 고향 사람들 눈에 그들의 모습은 눈부셔 보였다. 특히 손목시계나 금반지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마을에서 제법 잘 산다는 사람들 중에도 손목시계나 금반지를 낀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오사카에서 귀향한 이들은 여봐란 듯 마을을 활보하며 다니고, 친척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다. 그것이 허영심 때문이라 해도, 고신희의 욕망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자기도 어떻게든 오사카에 가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다.(중략)

고신희가 일본에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제주 사람들 사이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계(契)조직이 도와준 덕분이었다. 당시 오사카의 쓰루하시

(鶴橋)나 나카모토초(中本町)일대에는 제주도 출신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상호부조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싸구려 여인숙도 이카이노(猪飼野)나 모리마치(森町)일대에 수십 개나 있어서, 일본으로 건너온 제주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었다. 갓 결혼한 고신씨는 오사카에 있는 친지에게 부탁하여 나카모토초의 제주도 출신으로 구성된 계에 들어가, 두 달째에 갯돈을 타서 도항비를 마련하고, 김영자(金榮子)가 운영하는 나카모토초의 싸구려 여인숙에 신세를 졌다. 그리고 여인숙 주인인 김영자의 소개로 어묵공장 견습공으로 취직했다. 아내 명실도 모리마치 시장의 조선인 잡화점에 취직하여, 둘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1권 260~2쪽)

在日 濟州 出身들이 渡日하게 된 가장 많은 경우가 고신씨와 같은 경우일 것이다. 가난한 고향을 등지고 일본에 건너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지난날 제주도 농어촌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일본에서 一時 歸鄉한 사람들의 옷차림, 돈을 쓰는 모습, 어딘지 모르게 經濟的인 餘裕가 있어 보였던 것이 在日同胞들의 歸省 風景이었다. 설사 그들이 일본에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歸鄉時에 그런 모습은 감춰진다. '잘 사는 제일 동포' -- 그것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것은 식민지시대만이 아니고 産業化로 經濟成長이 시작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 "일본에 가면 돈을 번다."는 神話는 事實與否를 떠나 제주도 사람들을 자극했고, 그래서 渡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 3. 在日生活

#### 1) 밑바닥 삶

김준평이 도일했던 1920년 무렵부터 오사카의 어묵공장인 동방산업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있는 1930년 무렵까지 10년 동안 그가 살아온 과정을 小說을 통해 抽出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일 직후인 1920년 무렵에 반년 동안 와카야마의 깊은 산 속의 오두막에 기거하면서 나무를 베고, 와이어로 묶은 木材를 산 아래로 나르는 힘든 일을 했다. 돈벌이가 된다고 했지만 위험하고 고된 勞動인데다 外部와 완전히 遮斷된 監獄 같은 생

활이다. 同僚가 사고로 죽은 것을 契機로 그 일을 그만 둔다.(1권 103쪽)

2) 1922년 무렵 홋카이도 이시가리 河川工事場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1권 33쪽)

3) 1923년 무렵 다른 勞動者와 宿舍所에 함께 기거하면서 오사카 築港工事場에서 노동을 했다.(1권 49쪽)

4) 1927년 무렵 텐마(天滿)의 어묵공장에서 일한 일이 있다.(1권 49쪽)

5) 1930년 무렵 30세의 獨身으로 공장의 이층에 다른 노동자와 함께 기거하면서 어묵공장인 동방산업에서 일하다가(1권 13쪽) 工場長과 난투극을 벌인 끝에 解雇되어 다른 어묵공장인 태평산업에서 잠시 일했다.(1권 20쪽)

김준평의 삶은 밑바닥 삶이고, 공사관을 轉轉하다가 그래도 오래 일했던 곳은 어묵공장이다. 無學에다 文盲인 그로서는 그런 일자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비교적 오래 일했던 어묵공장의 狀況은 어떤가.

공장 이층에 있는 4평 넓이의 방에는 여섯 명의 직공이 살고 있었다. 술에 취해 흥투성이 옷을 입은 채 뒹아떨어진 사람도 있고,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자고 있는 사람도 있다. 목욕탕에 다녀온 지 한 달이 넘는 네모도 노부타카(根本信高)는 온 몸에서 퀴퀴한 선내를 풍기고 있었다. 숨이 비어져 나온 이불은 땀과 기름에 젖어, 목에 닿는 부분이 검게 변들거리고 있었다. 게다가 일년이 넘도록 이불을 걷은 적이 없고 청소도 하지 않은 방은 온갖 잡동사니와 술병과 누더기 같은 속옷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돼지우리보다도 지독한 상태였다. 천장의 네 귀퉁이와 벽장 속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고, 겨울인 데도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1권 11~2쪽)

30세의 노총각 김준평이 다른 직공들과 기거하는 방의 모습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조선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도 함께 기거하는 곳이다. 이것이 1920년대의 日本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곳에 살면서 직공들은 번쩍이는 칼을 저마다 所持하여 作業場에 나가고, 고기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는 작업을 하다가 그 칼로 서로 찌르기도 하는 險惡한 생활을 한다.

식사도 하루에 두 번, 오후 6시와 자정에 나온다. 물을 흘려 도마를 행구고, 그 앞에 나란히 선 채로 먹는다. 두 명의 식모가 식사 준비에 쫓기고 있었다. 커다란 솥으로 한번에 두 되 다섯 홉의 밥을 지어낸다. 반찬은 어묵 재료로 쓰다 남은 옥돔, 갈

차, 상어 같은 생선과 무, 배추, 양파 따위를 커다란 냄비에 함께 넣고 끓여서, 냄비째 도마 위에 올려 놓는다. 그러면 직공들이 맘껏 사발에 퍼담아 먹는다. 열두 명의 사내가 먹어대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중략)

식사가 끝나면 썰 틈도 없이 다시 생선을 도마에 쏟아 놓고 내장을 처리한다.(중략) '바테리아'와 '매화'의 주재료는 상어와 달걀이다. 상어살 6에 다른 생선 살 4의 비율로 섞는다. '바테리아'와 '매화'의 재료인 커다란 상어를 직공 넷이 힘을 모아 도마 위에 올려 놓는다.

“웁지! 이 놈은 나한테 맡기라구. 내가 깨끗이 처리해줄 테니까.”

김준평이 말하고는 끝이 뽕쪽한 식칼을 쥐고 상어의 하얀 뱃가죽을 갈랐다. 내장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배를 열고 내장을 꺼내보니 상어 밥통에서 사람 다리가 나왔다. 직공들이 일제히 “아악!” 소리를 내질렀다. 상어 뱃속에서 소화가 되고 있던 다리토막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가 되어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1권 16~7쪽)

金俊坪, 高信義 등을 포함해서 在日 濟州 出身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대체로 이렇게 날뎠을거나 공사판, 아니면 어묵공장 등 밑바닥 일들이었다. 이를테면 밑바닥 生活에다 거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李英姬가 渡日 直後 방적공장에서 일했다는 것은 위에서 言及했다. 그녀는 2년 반 동안 방적공장에서 일하다가 같은 고향 출신인 남자의 아이를 妊娠하고, 그것이 밝혀져 解雇된다. 그 당시의 방적공장의 상황은 어떤가.

공장장이나 작업반장을 빼고는 모두 젊은 여자들이었다. 개중에는 나이가 차지 않은 열대여섯 살의 소녀도 몇 명 있었다. 칠십 명의 종업원 가운데 3분의 1이 조선 여자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일본의 지방 출신 여자들이었다. 말하자면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집단이 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인은 가장 차별대우를 받고 있었다. 급료는 일본인의 절반도 안 되고, 게다가 전액을 강제로 저금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그 돈을 모아서 도망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식사도 일본인과는 따로 먹어야 했다. 아침에 정어리 두 마리에 단무지와 된장국. 점심은 잡탕죽. 저녁에는 우동과 밥이 고작이었다. 이따금 조리한 음식도 나왔지만, 일본 음식에 익숙지 않은 조선인 여공들에게는 식사시간이 고통스러웠다. 게다가 12시간 노동은 당연하고 때로는 15시간이나 일할 때도 있었는데, 그 동안 식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과 피로로 쓰러지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하고 기진맥진한 몸을 끌며 잠자리에 드는 생활의 연속이었다.(1권 136~7쪽)

1920년대 朝鮮人 女性들이 일본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는 在日 作家인 金鶴泳(1938-1985)의 小說에도 나온다.



다이쇼 12년의 봄 일본이라는 타국에 오자마자 가족들, 더구나 두 아이와 떨어진 낯선 땅에서 더부살이 여공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할머니의 심중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가 어느 방직공장에서 수십명의 한국인 여공들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지만, 그것은 너무 황폐하고 구슬픈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복장의 젊은 여공들이 흡사 굶주린 것처럼 미어지게 밥술을 퍼넣는. 인간이 밥을 먹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의 형상을 한 동물이 먹이를 삼킨다고 할까. 음침하기 그지없는 광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필경 그런 모습으로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떨어져 현장의 판자 숙소에서 묵고 있을 두 아이를 걱정하면서--'

李英姬는 어려운 職工生活을 하는 가운데, 서른 살 가량의 제주도 출신 작업반장을 만나게 된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異國 땅에서 기댈 데라고는 없는 영희는 그 남자에게 依支했고, 두 사람은 급속하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妊娠했다. 임신 5개월이 되었을 무렵, 남자는 고향에 돌아가 父母를 만나고 온 다음 정식으로 結婚하자고 했다. 영희는 그 말을 믿고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남자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고향에 妻子가 있는 몸이었다.

임신한 사실이 알려져 會社에서는 騷動이 벌어지고, 아이를 出産하자마자 그나마 고된 女工의 자리도 쫓겨났다. 고향에서는 고된 시집살이를 벗어나기 위해 渡日했지만 이번에는 故郷의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

그 후 그녀는 오사카의 濟州人 密集地帶에서 순대와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파는 가게를 열어 주로 제주도 출신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술집 풍경은 在日 濟州人の 생활의 斷面을 보여준다.

몇 번 온 적이 있는 김영진은 김준평을 안내하듯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5평쯤 되는 시멘트 바닥이 기억자 모양으로 꺾여 있고, 그 안쪽에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었다. 술청과 부엌 사이에 목로로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부엌에서는 술집 여주인(이영희=인용자)이 순대와 삶은 돼지고기를 찿고 있었다. 3평 짜리 큰 방과 2평짜리 작은 방에 열명 남짓한 손님이 앉아 있어서 상당히 바쁜 것 같았다. 두 방 안쪽에 다시 2평 짜리 골방이 있고, 거기에도 손님이 서너 명 앉아 있었다. 손님들 대부분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주도 사투리가 난무하고 있었다.(1권 124쪽)

3) 姜尙求譯, 『흙의 슬픔』(일선기획, 1988), 45쪽.

金俊坪과 李英姬, 그리고 高信義는 오사카의 제주인 밀집지대에서 밀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當時의 在日濟州人들의 生活 風景의 한 斷面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장 뒤편에 있는 모리마치(森町)시장은 흔히 '조선시장'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고 있었다. 1930년께의 오사카에는 아직 조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923년 4월에 '기미가요마루'가 취항한 이후 오사카로 돈벌러 오는 제주도 출신이 급증했다. 현재의 조토 구(城東區), 히가시나리 구(東成區), 이쿠노 구(生野區), 니시나리 구(西成區)에 해당하는 지역에 조선인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었고, 모리마치 일대도 조선인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다. 모리마치 시장의 고객들은 대부분 제주도 출신이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제주도 사투리가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고향 소식이나 친척, 친구, 친지의 소식과 온갖 정보가 교환된다.(1권 33쪽)

제주도 출신들이 모여사는 밀집지대에는 싸구려 도박장도 있어서 제주도 출신들의 돈을 움어내고 싸움도 벌어진다.

이 도박장에 드나드는 사람은 7할이 조선 사람이었다. 이 싸구려 여인숙 주인이 제주도 출신으로, 고향에서 건너온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열고 있었다. 당연히 현지 폭력단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폭력단을 자칭하지는 않지만, 덴노지 일대를 세력권으로 삼고 있는 다몬파의 하부조직 같은 존재였다.

김준평이 온 것을 알고, 여인숙 주인인 나카야마 미네오(中山峯男)--신봉남(申峯男)--가 다몬파 표시가 찍힌 윗도리를 걸치고 안방에서 나와 도박장에 나타났다. 이 무렵만 해도 조선 사람들이 일본식 이름을 갖는 일은 드물었다.(1권 52~3쪽)

在日濟州 출신들이 1930년 무렵 어떤 環境, 어떤 狀況 속에 있었는가는 이 인용문들을 吟味하면 알 수 있다. 그것은 밀바닥 人生들의 밀바닥 生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평, 이영희의 생활은 1930년 무렵 在日濟州人들의 生活의 縮圖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無力感과 挫折

뉴욕 證券市場의 株價暴落으로 시작된 大恐慌은 일본까지 밀려왔다. 어묵공장인

태평산업에도 그 영향은 미쳤다. 우선 賃金を 1割 削減當했다. 태평산업에는 스물여섯 명의 朝鮮人 職工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고신의, 김영진 등 제주도 출신들도 있었다. 처음 1할을 삭감하고 나서 다시 3할을 삭감하겠다는 通報가 나왔다. 그것도 조선인 직공을 대상으로 한 減俸이었다. 더 나아가 조선인 직공은 解雇시킨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現實로 나타났다.

“너희들을 오늘자로 전원 해고한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다. 사장님의 온정으로 너희들에게 각각 금일봉을 주겠다. 고맙게 알아라.”

공장장은 스물여섯 개의 봉투를 박현남에게 건네주었다. 봉투를 받아든 박현남은 제 봉투를 사람들 앞에서 개봉했다. 안에는 1엔이 들어 있었다. 박현남은 1엔짜리 지폐를 빛 속에 들어올리고는 “사람을 뭘로 보는거야!” 하고 외치며 공장장에게 내던졌다.

“무슨 짓이야! 사장의 온정을 모르겠나!”

누마다 공장장이 도리어 호통을 쳤다.

“온정? 이게 온정이야? 1엔을 가지고 어떡하라는 거야. 반년치 월급을 줘!”(중략)

“그래 반년치 월급을 달라!”

모두 일제히 소리쳤다.(중략)

“웃기는 놈들이군. 조선놈들 주제에 무슨 소리를 지껄이는 거야? 분수를 모르는 놈들! 경찰을 부르겠다.”(1권 220~1쪽)

1엔씩 받고 解雇當한 조선인 직공들은 차분히 對應할 論議도 제대로 못하고 술집에 모여 그 돈으로 술을 마시면서 興奮 狀態에 빠진다. 고신의가 차분하게 대응하자고 說得하는데도 一部の 직공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會社에 달려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박현남, 고신의 등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미리 예기하고 있었던 듯 T場에서는 깡패들을 動員해서 待期하고 있었다.

허인훈을 선두로 대여섯 명이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목검과 몽둥이를 든 사내들이 갑자기 나타나 앞을 막아서자 멈칫했다.(중략) 함정에 빠졌구나 생각한 순간, 와야하는 함성과 함께, 조선인 직공들은 벌집을 쑤서놓은 듯 도망칠 길을 찾아 우왕좌왕했다. 회사측이 고용한 깡패들은 목검이나 몽둥이를 치켜 들고 조선인 직공들을 쫓아가며 마구 두들겨패기 시작했다. 허인훈은 목검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뒤에서 뒤통수를 호되게 얻어맞고 기절했다. 맨손인 조선인 직공들은 무기를 든 깡패들에게 실컷 얻어맞고 유린당했다.

고신익은 담장 위로 목만 내밀고 가슴이 쥐어뜯기는 듯한 심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리저리 달아나는 조선인 직공들을 집요하게 뒤쫓는 깡패들. 무서운 폭력이 조선인 직공들의 머리 위에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었다. 이래도 되는 거야. 고신익은 분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구르며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나기까지 했다. 문득 사무소 이층 쪽을 바라보니, 누마다 공장장이 창가에 서서 그 처참한 광경을 고소한 듯 내려다보고 있었다.(1권 228~9쪽)

工場에서 조선인 勞動者를 解雇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에 對應하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어리석음과 未熟함이 더 문제다. 걸핏하면 앞뒤 생각없이 흥분하고 行動하는 激情的 性格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許多했다.

진정하라고 그토록 제지했건만, 이를 무시하고 달려간 동료들의 무분별에도 화가 치밀었다. 매사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선인의 성격에는 정말이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 자업 자득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회사측 처사는 너무 야비하다. 막 다른 궁지에 몰린 조선인 직공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서른 명이나 되는 깡패를 고용하여 기습한 것은 비열하기 짝이 없다. 쏠을 길 없는 분노에 치를 떨면서 동료들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고신익은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이 놓여있는 현실임을 새삼 실감했다.(1권 230쪽)

이 일을 전후해서 일본 警察은 勞動者의 뒤에 左翼 勞動運動家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고신익, 박현남 등을 체포해갔다. 고신익 등을 注目한 것이 아니라 背後에 있다고 생각되는 共產黨을 索出하자는 것이었다. 이들 가운데 고신익은 警察의 注目의 對象이었다. 그것은 左翼活動과 관련이 있는 東亞通航組合 組合員의 名單에 그의 이름이 있었고, 이것을 追窮하면 左翼分子를 색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아통항조합은 오사카와 제주도 사이에 連航하는 일본 船舶의 運賃이 지나치게 비싸 이에 對抗하기 위해 조선인들이 돈을 모아 선박을 賃賃하여 運營하자는 趣旨로 結成된 것이다. 그 때 제주도 출신 동포들이 여기에 많이 參與했고, 고신익도 그 때 이름을 적어냈던 것이다. 결국은 실패했지만 고신익의 이름이 名單에 있었기 때문에 고신익을 거짓 自白시켜 左翼 勞動運動家를 색출하려는 意圖로 고신익을 收監하고, 拷問을 계속한다. 그러나 자백을 하면 풀어주겠다는 脅迫과 懷柔에도 불구하고 고신익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합의 배후에 노동운동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로서는 몰랐기 때문이다. 겨우 文盲을 벗어나 新聞을 읽는 정도의 知識水準으로서

는 이데올로기 문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현남 등은 釋放되었지만 고신의는 1년6개월의 實刑을 宣告받는다.

고신의의 受難은 곧 在日韓國(朝鮮)人-- 좁게는 在日濟州人の 삶을 反映한다. 그것은 無力感과 挫折의 反復이다.

### 3. 家庭의 不在

傳統的인 村落共同體를 이루고 있었던 1920-30年代의 제주도에서 김준평과 이영희는 고향에서 살기가 어렵다. 김준평은 不良少年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烙印이 찍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살아가기가 어렵고, 이영희도 事情이야 어떻든 시집과 男便을 버리고 家出한 女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통사회의 불문물이다.

村落共同體에는 道德的 監視者가 到處에 있다. 모두 서로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어서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 倫理나 道德에서 벗어난 行爲를 하면 이내 指彈의 對象이 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모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다. 그들은 外地에 나가 살면서 좁은 공동체의 監視者들의 눈을 벗어날 수 있는 自由를 얻는다. 대신에 인간의 지켜야 할 틀을 쉽게 벗어나는 脆弱點도 있다. 그래서 男女가 結合하는 것도 자유롭다.

김준평은 30이 넘을 때까지 여러 여자를 알고 있었지만 獨身으로 지낸다. 이영희는 고향에서 시집을 脫出하여 일본에 건너가 紡織工場에서 일할 때 제주도 남자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두고 있는 30이 넘은 독신녀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면 故郷에서는 非難을 받을 일이지만 道德的 監視者가 없는 일본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의 結合은 奇妙하다.

두 사람은 이영희가 경영하는 술집에서 처음으로 어울렸다. 도덕적 감시자가 없었고, 또 그들을 비난할 사람도 없었다. 대체로 그것은 김준평의 強制的인 行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웃들에게도 알려졌고, 기묘한 결혼식이 이루어진다.

집에 와보니, 분명히 잠그고 간 앞문이 열려 있었다. 영희는 도둑이 든 것이 아닐

까 놀라서 황급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현관에는 수많은 신발이 뽁뽁이 놓여 있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싶어 방안을 들여다보니, 스무명도 넘는 남자가 술상을 차려놓고 한창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절반 이상이 아는 얼굴이지만, 주인도 없는 집에 제멋대로 들어와 잔치판을 벌이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잔뜩 화가 난 영희를 맨 먼저 발견한 김영진이 다가왔다.

“아주머니,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김영진은 영희의 손을 잡고 큰방으로 안내했다. 주인이 손님한테 이끌려 안내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분위기가 이상한 방 한복판에 김준평이 떠억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영희는 예삿일이 아니구나 생각했다. 게다가 김준평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김영진이 영희를 김준평 옆자리에 억지로 앉혔다. 그러자 모두 환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환성과 박수가 갈아앉자, 그들 사이에서 쉰 살 남짓한 사내가 일어섰다.

“아주머니, 축하합니다. 오늘부터 아주머니는 김준평이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에는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 말 뜻을 이해하자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 경우에 어긋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당사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피로연을 열다니. (1권 150~1쪽)

30을 넘기고 딸까지 둔 여자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치러진 기묘한 結婚式이 있는 뒤 영희는 김준평을 男便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준평은 家長으로서의 役割은 커녕 걸핏하면 영희를 暴行하고, 돈을 빼앗아 노름을 하거나 다른 여자에게 쏟아 부었다. 그러다가 집을 훌쩍 떠나 消息을 전해오지 않은 일이 非一非再했다.

결혼한 뒤 김준평은 공장 일을 쉬고 있었지만, 어느새 공장을 그만 두어버렸다.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이따금 외출해서는 사나흘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영희는 또 한밤중에 돌아와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층에서 딸과 함께 바짝 긴장해 있었다. 무슨 업보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다. 술집 매상도 김준평이 대부분 빼앗아갔다. 이제까지 저축해둔 돈도 벌써 바닥이 났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가서 가난해질 게 뻔했다. 하지만 그저 참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1권 163쪽)

이들 夫婦는 부부이면서도 夫婦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난다. 김준평은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로서의 愛情도 없고, 돌보지도 않는다. 그들은 父子, 또는 父女이면서도 家族으로서의 기본적인 信賴와 愛情이 없다. 他人보다도 못

한 關係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김준평은 영희네 집으로 쳐들어왔다. 영희와 하나코와 기요코는 재빨리 난간 마루에서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도망쳤지만, 여기서 이편이 일어났다. 성한이(김준평과 이영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용자)가 김준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을 걸어차고 들어온 김준평은, 당연히 도망쳤을 줄 알았던 성한이가 눈앞에 우뚝서 있었기 때문에 흠칫 놀랐다. 거기에 서 있는 것은 겁먹은 아린애가 아니었다.(중략) 지난 3.4년 동안은 길에서 엇갈리거나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을 뿐이지만, 지금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서서 보니 성한이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살의에 가까운 증오가 바작바작 전해져왔다.

“이 놈, 나하고 겨뤄볼 셈이냐!”

김준평은 다짜고짜 성한이의 멱살을 잡았다. 성한이는 고개를 숙이고는 필사적으로 김준평의 몸을 붙들고 늘어졌다. 거목 같은 김준평의 몸에서 발산되는 역겨운 독기가 성한이의 코를 찔렀다. 난생 처음 아버지의 몸에 접촉한 성한이는 그 이상한 감촉에 당혹감을 느꼈다.(중략) 성한이는 김준평을 힘껏 때밀었지만, 김준평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성한이는 김준평의 무릎에 걸터차며 갈비뼈에 강한 충격을 받고는 통증을 견디지 못해 꾸그려앉았다. 김준평은 공격의 손을 늦추지 않았다. 성한이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는 질질 끌고 가서 밖으로 내던졌다. 성한이는 두세 번 구르며 맞은 편 집 벽에 충돌했다. “으음”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성한이는 일어나서 김준평에게 다시 덤벼 들었다.

“네놈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부모를 죽이려는 놈이야.”

김준평이 말했다.

“나한테는 당신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성한이도 지지 않고 응수했다.

“무슨 생떼를 쓰는 거냐. 나한테 대든 걸 후회하게 해주마.”

김준평은 비틀거리고 있는 성한이에게 박치기를 했다. 성한이는 눈앞이 캄캄해서 기절했다.(중략)

이튿날 영희와 하나코는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는 성한이를 이쿠노쿠에 있는 동포의 종합병원으로 데려갔다. 진찰 결과, 코뼈와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고, 급성 늑막염에 걸려 있었다. 아들도 용서하지 않는 김준평의 잔인함에 영희와 하나코는 새삼 소름이 끼쳤다.

“유도를 조금 배웠다고 아버지한테 덤벼들다니. 깡패도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하나코는 무모한 성한이를 나무랐다.

“다음에는 죽여버리겠어.”

너무나 뚜렷한 힘의 차이는 어쩔 도리가 없어서, 성한이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아버지를 죽이면 어떡해?”

“그 높은 아버지가 아니야, 짐승이라구. 누나는 그놈을 아버지로 생각해?”(3권 125~7쪽)

家庭이란 家族 構成員 사이에 信賴와 사랑과 保護가 前提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김준평의 가정에는 그것이 없다. 暴力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폭력이 무서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미 家庭이 아니다.

#### 4. 맺음말

在日 韓國(朝鮮)人의 문학에 접근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일본인의 눈으로 읽는 것이다. 在日 作家들의 작품은 일본어로 發表되어 일본 讀者들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在日 韓國(朝鮮)人의 눈으로 읽는 것이다. 在日 作家의 작품들 가운데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在日 한국(조선)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形象化한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韓國人--좁게는 濟州人의 눈으로 읽는 것이다.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 제주도 사람들이 過去에 왜 일본에 그렇게 많이 건너갔고, 또 日本에서의 生活은 어떠하며, 오늘의 問題는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筆者는 제주도에 있으면서 濟州人의 눈으로 제일 작가의 작품을 읽는다. 따라서 觀點과 視覺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지 모른다. 제주인의 눈으로 梁石日의 『피와 뼈』를 읽었을 때, 人間의 普遍的인 問題--人間 本性和 存在 方式에 대해서 독특한 느낌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作品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看過하기 쉬운 濟州人의 渡日 事情과 在日生活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에 눈을 돌리고 이 作品을 點檢해 보았다.

어느 程度 豫見된 것이기는 하지만, 濟州人이 移民 또는 流浪과 그 후의 생활은 鮮明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한마디로 고향에서 살기 힘들어 새로운 삶을 찾아 일본에 건너갔지만, 일본에서의 생활은 밀바닥 삶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 사람들의 渡日 事情은 각각 다르고, 在日生活도 千差萬別이지만 그 背景을



더듬어 보면 이 소설에서 다루어진 문제가 普遍的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20~30年代의 在日 濟州人の 생활은 그렇게 悲慘했을 것이다. 그런 逆境을 딛고 1990年代인 오늘날의 生活을 이룩한 것이다.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과거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로 남을지도 모른다.

대체로 在日作家的 작품에서 다루어진 問題는 正體性(identity)의 문제와 父子 혹은 父女의 葛藤이다. 正體性의 문제는 金鶴泳의 小說<sup>4)</sup>과 李良枝의 小說<sup>5)</sup>에서 필자도 가볍게 점검한 바 있다. 아버지(父)와의 葛藤은 金鶴泳 小說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sup>6)</sup>, 김학영 소설의 아버지(父)는 家族과의 連帶가 前提된 것이다. 그러나 梁石日 小說의 아버지(父)는 가족과의 連帶가 없다. 끝까지 가족을 향하여 害惡을 가하는 독특한 存在로 등장한다. 그것이 양석일 소설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父像일 것이다.

- 
- 4) “엮어지는 민족의식/김학영론” 『문학과 비평』 18호(1991. 6), 279쪽.(후에 『분단상황과 문학』에 수록).
  - 5) “이양지의 세계” 『문학공간』 3권19호(1991. 6), 104쪽.(후에 『분단상황과 문학』에 수록).
  - 6) 다케다 세이지(竹川青巖), 『〈在日〉という根據--李恢成, 金石範, 金鶴泳』(동경, 1983.1), 171~2쪽.